

03

동아시아 국제이론의 모색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 논의를 중심으로

■ 신옥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1993)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1998)

「한미동맹의 내부적 역동성: 분석틀의 모색」(2001)

Contents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와 주권
-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적 국제정치이론' 모색의 일환으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의 국제정치이론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는 목적에서, 서구의 '국제사회'와 '주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와 그 시기적 차별성을 비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이론 부분에서는 먼저 국제이론의 의미와 현재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적 논쟁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 논의의 내용을 알아본다. 논문의 사례부분은 식민주의, 냉전, 그리고 탈냉전의 세 시기에 걸쳐서 국제사회와 주권이라는 근대 국제질서의 핵심 요소가 동아시아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식민주의 시기는 국제사회의 양면적인 속성과 근대적 주권의 수용과 상실의 과정이, 냉전기는 양분된 국제사회의 존재와 구명 난 주권의 형태가, 그리고 탈냉전기는 다변화된 국제사회의 양상과 주권의 재구성의 측면이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국제사회, 주권,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

1. 서론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이라는 주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국제정치 학계의 화두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과연 한국적 이론이 필요한가, 혹은 가능한가라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그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의 국제정치이론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지적 수준의 단일사례가 갖는 일반 이론과의 거리를 의식하면서, 중범위 이론의 매개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서구이론의 보편적인 성격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차별적인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중첩적인 목적을 가지며, 동아시아의 이론을 내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구이론의 지역적 적용의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유럽의 국제체제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나, 이는 국제화의 과정을 통하여 근대적인 보편성을 획득하였고, 아직도 연속성의 측면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

아도 물론 자신의 지역적 차별성을 갖고 있으나, 근대 이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갖는 특수성은 세계적인 보편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대 국제정치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와 한국의 사례가 갖는 이론적 의미를 검토하려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방법론에 있어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즉 국제정치학 내에서 실증주의적인 설명의 영역과 해석학적인 이해의 영역 사이의 매개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정치이론과 외교사, 보다 광범위하게는 정치학과 역사학 사이의 학문적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교사례연구가 갖는 가교적 의미를 고려해 보려는 것이다.¹⁾ 이와 같은 취지에서 스나이더(Jack Snyder)는 특정사례에 대한 세부적 이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연역적인 주장으로 명제화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례 연구와 이론 연구의 연결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²⁾

국제정치이론에 의한 동아시아 사례의 분석이나,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이 갖는 이론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국제정치학과 역사학 모두에서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자의 예로 우철구, 박건영과 아이켄베

-
- 1) 국제정치학에서 설명과 이해의 방법론적 구별과 연결을 위해서는 M. Hollis and S. Smith,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을, 국제정치학과 역사학 간의 교류의 가능성과 한계를 위해서는 C. Elman and M. Elman(eds.),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2001)을, 그리고 비교사례연구의 방법론을 위해서는 J. Mahoney and D. Rueschmeyer(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를 각각 참조할 것.
 - 2) J. Snyder, "Richness, Rigor, and Relevance in the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9(Winter 1984/1985). 이와 같은 연구의 예로 J. Snyder, *Myth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를 들 수 있다.

리(John Ikenberry)와 매스탠두노(Michael Mastanduno)의 저작이 있으며,³⁾ 후자의 예로 역사학회와 백영서의 작업 등을 들 수 있다.⁴⁾ 우철구, 박건영의 작업은 대안적 국제관계이론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관계이론의 갈래를 소개하고 그것이 동아시아와 한국의 사례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한다. 다양한 국제정치이론의 지역적 수용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주로 이론의 소개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사례연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이켄베리와 매스탠두노의 책은 미국의 주류 이론들을 동원하여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제정치적 사례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내고 있다. 하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제해결 이론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현재의 갈등이 갖는 역사적 토대에 대한 비판이론적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역사학회의 작업은 전쟁과 세계체제의 변화에 대한 서구의 작업과 대비되는, 광범위한 시기의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를 고찰하고 있는 유용한 연구이나, 학문적인 성격상 이론적 논의는 주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백영서의 책은 제국적 주체의 변화와 그 구조 아래에서의 한국의 국가적 지위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면서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하지만 저자 모두가 공유하는 체계적인 이론적 틀이나 개념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면서 이 주제에 있어서 이론

3)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서울: 사회평론, 2004); J. Ikenberry and M. Mastanduno(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4)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서울: 일조각, 2006); 백영서 외, 『동아시아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파주: 창비, 2005).

과 사례의 좀 더 효과적인 결합의 형태와 그 기초를 찾아보려 한다. 이 작업은 서구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된다. 즉 ‘국제사회’와 ‘주권’과 같은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적인 논의를 원용하면서, 이러한 개념 내지는 관념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와 그 시기적 차별성을 비교적 검토하는 것이다.⁵⁾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적 개념을 설정하고 그 지역적/국지적 변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각 시기적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통시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논문의 이론 부분에서는 먼저 국제이론(international theory)의 의미와 현재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적 논쟁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 논의의 내용을 알아본다. 논문의 사례 부분은 식민주의, 냉전, 그리고 탈냉전의 세 시기에 걸쳐서 국제사회와 주권이라는 근대 국제질서의 핵심요소가 동아시아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5) 개념이나 관념은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한 일정한 현실적인 규정력을 갖게 된다. 코젤렉(Koselleck) 등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개념사의 방법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코젤렉은 말과 실재, 즉 개념과 현실의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양자를 연구하는 개념사와 사회사 두 방향 연구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개념사는 사회사에 대해 보조적, 병렬적, 독립적인 역할을 모두 갖는 것으로, 이는 사회사와 단순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다. R. Koselleck, *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The MIT Press, 1985), part II. 마찬가지로 홀(Hall)은 관념적인 힘이 사회적 실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그에 따른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이 갖는 역할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J. Hall, "Ideas and Social Sciences", in J. Goldstein and R. Keohane(eds.), *Ideas and Foreign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2. 이론적 고찰

(1) 국제이론의 의미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와이트(Martin Wight)는 “왜 국제이론은 없는가(Why is there no international theory?)”라는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다루는 정치이론과 ‘국가들의 공동체’를 다루는 국제이론을 구분하면서, 국제관계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사상적, 법적인 접근들을 검토하였다. 그는 국제이론 부재의 이유로 학자들의 주권에 대한 지적인 편견과 진보에 대한 믿음의 상대적인 부재를 언급한다. 한편으로 와이트는 국제이론과 외교적 실제 사이의 긴장관계를 언급하면서, 당시의 국제정치학 이론은 생존을 위한 이론으로서 역사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⁶⁾ 이 주장은 현실주의자로서의 와이트의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론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분석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그의 이상주의적 견해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⁷⁾ 따라서 국제이론을 설명이론과 규범이론 중 어느 하나로 일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논의의 전제일 수 있는 것이다.⁸⁾

6) M. Wight, “Why Is There No International Theory?” in H. Butterfield and M. Wight(eds.), *Diplomatic Investigations* (London: Allen and Unwin, 1966).

7)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이 이후 영국학파의 특징으로 여겨지게 된 이른바 ‘중도(via media)’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박건영·전재성 교수도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의 모색을 논의하면서 국제관계이론이 현실에 대한 귀납적 연구를 바탕으로 추상과 비교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설들을 발견해내거나 혹은 타 분야에서 공리의 위치에 오른 가설들에서 연역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설들을 만들어내는 설명적 이론으로서의 기능과, 국제관계에 관련된 당위, 규범, 가치를 논하는 규범적 이론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의 국제관계 현실을 실증적으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론과 한국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범이론의 개발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재성·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이러한 구분은 크래스너(Stephen Krasner)에 의해서 원용되는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와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의 차이와도 유사하다. 결과의 논리는 모든 정치적 행동을 합리적인 계산으로 간주하는 반면, 적합성의 논리는 그를 규범과 규칙, 그리고 정체성의 산물로 이해한다.⁹⁾ 주어진 정치단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결과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합성의 논리 또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는 적합성의 논리가 오히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재 한반도의 정치적인 역학 또한 결과의 논리와 적합성의 논리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¹⁰⁾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국제이론이 두 요소를 함께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자의 혼합의 형태로 국제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다루어질 국제사회와 주권의 관념이 바로 이러한 적합성의 논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글은 한국적 국제정치이론 모색의 하나의 방법 혹은 단계로 지역적 국제정치이론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즉 관념과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¹¹⁾ 동아시아 국제이론이라는 중범위 이론이 있는 것이 설명이론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우철구·박건형 편(2004).

9) S.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ch.1.

10) 사대질서를 구성했던 예(禮)의 논리나,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가 중심적 시각과 민족 중심적 시각 사이의 대립의 존재가 그 예이다.

11) 이용희는 권역을 "일정한 정치행위의 의미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의미권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것은 "정치가 그것이 진정으로 연구되려면 특정한 사회현상을 정치로 관념하는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박영사, 1962), pp. 48~49.

과 규범이론의 양면에서 모두 적절하되, 이는 서구의 이론적 틀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다.¹²⁾ 그렇다면 다음 논의는 기존의 서구이론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설명과 이해를 위하여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각각의 이론은 어떠한 점에서 적실성과 한계를 갖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¹³⁾

탈구조주의적 비판이론을 제외한다면 현재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적 패러다임의 분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삼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패러다임은 설명변수로서 권력/이익, 규범/제도, 관념/정체성의 변수를 각각 강조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분석은 사실상 이들 변수 모두의 고찰을 필요로 하며, 각각의 시각은 동아시아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¹⁴⁾ 하지만 이러한 분석적 절충주의(analytic eclecticism)는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분석적 개념이나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국학파(the English School)의 국제사회론과 최근에 거론되는 변형된 주권의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 논의가 기존 패러다임의 구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근대 국제정치의 시공간적인 보편성과 지역적/

12) 장인성은 동아시아 문명의 구성원리와 존재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구 근대 문명과 대비에서 규정되어 온 지나친 타자성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를 하나의 방법으로 포착하려는 관점에서 동아문명의 역사적 존재방식을 재구성하고 변용의 개연성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인성, “동아시아의 문명과 국제사회: 구성원리와 존재방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2002). 하지만 재구성과 변용의 모습을 고찰하려면 결국 그 계기를 제공한 서구 근대 문명의 원리와 방식과의 결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13)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 신욱희,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13권 1호(1997)를 볼 것.

14) 대표적인 작업으로 J. J. Suh, et. al.(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Power, and Efficien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를 참조할 것.

국지적 차별성을 함께 드러내기에 적합한 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론적 조류, 특히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합리적 패러다임에 비해 이들 두 이론은 모두 역사적/비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⁵⁾

(2) 국제사회론

와이트에서 시작되어 불(Hedley Bull)과 왓슨(Adam Watson)을 거쳐 부잔(Barry Buzan)에 이르고 있는 국제사회론은 그것이 보여주는 다면적인 속성에 의해서 현실주의/자유주의의 이론적 양분법과 역사주의/구조주의의 방법론적 양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각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체제와 세계사회와의 차별성에 기반한 국제사회에 대한 영국학파의 기본 논의는 잘 알려진 것처럼 홉스적 입장과 칸트적 입장에 대비되는 그로티우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하지만 영국학파의 논의가 모두 국제사회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중요한 점은 국제체제, 국제사회, 세계사회의 지속적인 공존과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사회가 다른 두 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¹⁶⁾

한편으로 국제사회론은 사회의 형성요인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전제로 하면서 질서의 차원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다원주의(pluralism)의 입장과, 형성요인으로 공동의 규범을 전제로 하면서 정의의 차원을 강조하는,

15) 영국학파의 합리주의적 전통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성찰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합리적 패러다임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16) B. Buzan and L. Little, "Why International Relations Has Failed as An Intellectual Project and What to Do about It", *Millennium*, 30-1(2001), p.37.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연대주의(solidarism)의 입장으로 양분되기도 한다. 이 두 시각은 최근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논쟁에서 주권과 인권을 각각 중시하면서 반대와 찬성의 대립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론적 패러다임과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론과 각 이론 사이의 유사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근래의 논문에서 부잔은 구조적 현실주의/레짐이론과 영국학과 사이의 공통분모를 강조하였으며,¹⁷⁾ 보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구성주의와 국제사회론의 유사점과 소통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¹⁸⁾

학과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론은 기본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정치의 전개 과정을 묘사한다. 즉 유럽의 국제사회가 진화와 확산의 과정을 거쳐 그를 문명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으로 하는 보편적 국제사회를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잔은 리틀(Richard Little)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의 유럽 중심성을 비판하고 역사적인 비교를 통하여 규모, 상호작용의 빈도와 형식, 그리고 구조적 특성을 달리 하는 복수의 국제체제/국제사회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국제체제의 논의에 비교세계사적 시각을 덧붙임으로서 영국학과의 이론이 국제정치학의 거대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17) B. Buzan, "From International System to International Society: Structural Realism and Regime Theory Meet the English Scho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3(1993).

18) 예를 들어 루스-스미트(Reus-Smit)는 이 두 그룹이 국가 정체성의 문화적 기반, 규칙에 의한 지배라는 국제사회의 속성, 그리고 무정부성 하에서의 국가의 다양한 존재 양식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본다. C. Reus-Smit, "Imagining Society: Constructivism and the English School",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4-3(2002). 또한 애들러(Adler)는 구성주의와 영국학과의 협력을 통해 분석적이고 규범적인 국제관계이론의 포괄적인 종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 Adler, "Barry Buzan's Use of Constructivism to Reconstruct the English School: 'Not All the Way Down'", *Millennium*, 34-1(2005).

피력하고 있다.¹⁹⁾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사례가 일반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사례가 지나치게 상대화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아울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우리에게서 서구 모델의 세계화와 그것의 지역적 변용의 형태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동아시아나 한국이 보여주는 전환과 혼합의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변형된 주권 논의

주권론이 국제사회의 구성단위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두 논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내적인 주권 관념의 정립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보댕(Jean Bodin)에서부터 국가라는 특정한 정치단위의 권력이 대외적 주권의 이름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다룬 힌슬리(Francis Hinsley)에 이르기까지 주권은 오랫동안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²⁰⁾ 크래스너는 그의 저작을 통해 (국가)주권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으로 묘사되나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침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존재는 하나 구속력은 약한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주권의 차원을 한 국가 내의 공적 권위의 조직과 그에 의한 효율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국내적 주권, 국경을 통과하는 흐름을 통제하는 공적 권위의 능력을 지칭하는 상호의존적 주권, 국가나 다른 개체 사이의 상호인정을 의

19) B. Buzan and R. Little, *International Systems in World History: Remaking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부잔과 리틀은 화이트적인 전통이 역사사회학이나 세계사의 연구들과 연결될 때 방법론과 주제에 있어 명백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Buzan and Little(2001), p.36.

20) J. Bodin, *On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F. Hinsley, *Sovereignty* (New York: Basic Books, 1966).

미하는 국제법적 주권, 그리고 국내적 권위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적 행위자의 배제를 지칭하는 웨스트팔리안적 주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는 이 중 국제법적 주권과 웨스트팔리안적 주권은 쉽게 침해되어지는 타협된 형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협정, 계약, 강제와 부과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크래스너에 의하면 한 국가의 통치자들은 국제법적 주권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외부적 자원을 끌어들이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안정된 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외교활동에서 면책특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국내적인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정이 절대적인 국제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적 주권의 존재가 특정 국가의 영토적 통합이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웨스트팔리안적 주권이 전제하는 불간섭의 원칙 또한 국제체제에서는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약소국에게 있어 이는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처럼 보이지만 이 원칙은 간섭과 초대에 의해서, 즉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훼손되거나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위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주권의 개념은 모두 조직화된 위선의 좋은 예이며, 이는 통치자가 국제관계에서 결과의 논리에 따라 국가의 목표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²¹⁾

크래스너는 자신의 이론을 신현실주의, 국제사회론, 영국학과, 그리고 세계문화론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규범과 행위 사이의 적합성은 낮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규범의 지속성은 높은 것으로 주권적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이론 중 어떤 것도 국제법적 주권과 웨스트팔리안

21) Krasner(1999), ch.1.

적 주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적절하게 개념화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행위자 중심 이론을 넘어서 제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수의 규범과 권력의 비대칭성, 그리고 권위적 구조의 부재로 특징 지워지는 국제체제에서는 주권을 포함한 어떠한 제도적 기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²²⁾

나아가 그는 탈냉전의 세계정치를 분석하면서 문제 있는 주권(problematic sovereignty)의 사례에서 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새로운 상황하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정의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주권 개념의 변용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강제와 부과보다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대안적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의 의미를 지적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의 주권의 부분적 양도나 홍콩의 반환과 일국양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 분포의 변화와 현실적인 이익의 계산, 그리고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주권적 제도의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²³⁾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래스너가 묘사하고 있는 결과의 논리에 따른 주권의 상대성과 더불어, 적합성의 논리로서 주권이 갖는 공식적 규범의 측면과 둘 사이의 탄력적인 공존의 형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설명이론의 제공과 규범이론의 제시가 모두 필요하며, 이는

22) Krasner(1999), ch. 2.

23) S. Krasner, “Explaining Variation: Defaults, Coercion, Commitment”, in Krasner, ed., *Problematic Sovereignty: Contested Rul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바디(Badie)는 이를 “창의적인 이탈(creative devia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B. Badie, *The Imported State: The Westernization of the Political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국제관계의 체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 서술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과 크래스너의 변형된 주권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한국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가능케 하는 근거 틀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와 주권: 한국의 사례

(1) 식민주의: 양면적 국제사회와 근대적 주권의 수용과 상실

아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각각의 시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국제사회와 주권의 모습을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근대 동아시아의 지역체제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체제의 단순한 종속변수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서구 국제체제의 확산과 전파의 측면과 그에 대한 수용과 대응의 양상이 공존하면서 그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식민주의 시기인데 이 사례의 고찰에서 중시되는 국제사회의 특성은 그것이 갖는 양면성이다. 화이트는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는 인류의 공동체로서의 세계적 국제사회의 넓은 경계와 합의에 기반한 실증적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서구 기독교 국가들 사이의 국제사회의 좁은 경계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불은 이후의 국제사회 서술에 있어서 두 번째의 좁은 경계에 실제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였고, 서구 국제체제의 확산 과정은 불가피하게 이 두 경계 사이의 마찰을 가져오게 되었다.²⁴⁾

24) 왓슨은 서구에 의한 국제사회의 규칙과 표준의 전파과정을 설명하면서 비서구 지역에 대한 상호 동의에 의한 팽창과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A. Watson,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초기 서구 국가들은 비서구 국가들에 대해 보편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 했다고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내 문명기준에 따른 분할 가능한 주권(divisible sovereignty)이나 준주권(semi-sovereignty)과 같은 차별적 개념을 동원하면서 이를 그로티우스의 주권 개념이 갖는 탄력성에서 찾는 합리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킨(Edward Keene)은 식민주의 시기에는 유럽의 국제사회와 식민지 국제사회라는 사실상 두 종류의 국제정치적/법적 질서가 존재하였고, 각각은 관용(toleration)과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권의 공적인 권리와 재산의 사적인 권리의 구분을 통해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이론에서 분할 가능한 주권의 개념을 도출하고, 미국의 연방주의나 영국의 인도 경영과 같은 비서구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준주권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은 양면적 국제사회의 환경에서 동아시아의 삼국은 청은 반식민지로, 일본은 제국으로, 그리고 조선은 식민지로의 차별적인 행로를 걷게 되었다. 영국학과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 의한 동아시아 사례 고찰의 대표적인 예는 공(Gerrit Gong)의 저작이다.²⁶⁾ 그의 작업이 문명기준의 확산과 전파라는 전형적인 국제사회론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면, 이후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용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해석하고 있다. 장

and its Expansion", in H. Bull and A. Watson(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84).

25) E. Keene, *Beyond Anarchical Society: Grotius, Colonialism and Order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그의 책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킨은 자신의 저작을 통해 불의 국제사회론을 비판 내지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6) G.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84).

(Yongjin Zhang)은 중국의 실질적인 국제사회 가입은 19세기 중반이 아니라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중국의 국내개혁을 통한 서구식 공동체로의 전환, 1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구축과정에서 등장한 민주적인 협력 분위기, 그리고 전후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주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²⁷⁾ 스즈키(Shogo Suzuki)는 일본이 한편으로는 문명기준의 수용에 의하여 문명국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만에 대한 강압적 정책의 채택이라는 서구의 또 다른 정체성과 행태를 학습하였던 것으로 일본의 국제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서구의 국제사회 모델이 보다 진보적이었다는 기존의 편견을 비판하면서, 비 서구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방식을 학습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하여 상대적인 정당화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은 양면적 국제사회의 환경에서 조선은 새로운 질서 전파를 통해 대외적이고 형식적인 주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이에 관련된 대내적이고 실질적인 주권의 조건은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근대적인 주권 개념의 도입은 강화도 조약, 청일전쟁, 대한제국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만국공법을 통해 대외적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하고, 중립론을 주장하면서 형식적 주권의 유지를 위한 강대국의 신의의 역할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관념의 수용과 함께 주권의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강의 필요성

27) Y. Zhang, "China's Entry into International Society: Beyond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7(1991).

28) S. Suzuki, "Japan's Socialization into Janus-Faced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1(2005).

과 균세의 원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크래스너는 19세기 동아시아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조선의 사례를 명분과 국내정치적 동기가 우세하게 되면서 적합성의 논리가 결과의 논리를 압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⁹⁾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 방식은 상이하였지만 근대 국제체제의 무정부적/제국주의적 속성을 인지하고, 국권을 보존하면서 근대국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였다.³⁰⁾ 그러나 일본의 패권이 강화되는 동아시아에서의 '시간과의 싸움'은 조선에게 유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는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이것이 근대적 주권의 수용과 상실의 동시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2) 냉전: 양분된 국제사회와 구명 난 주권

두 번째 시기는 냉전기에 해당한다. 이념적 갈등으로서 냉전의 씨앗은 이미 러시아 혁명 이후 잠재하고 있었지만, 미소의 체제 간 대립은 194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전통적 방식의 힘의 균형에서 핵의 존재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의 변화는 냉전체제를 양극성이 지배하는 독특한 국제체제로 만들었는데, 이는 군사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 그리고 진영 간 정치와 진영 내 정치의 이원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냉전기의 세계는

29) 크래스너는 조선의 사례와 비교해서 청의 경우는 서구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적합성의 논리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새로운 결과의 논리에 적용하려 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는 관념적, 물질적 측면에서 모두 새로운 질서가 부여하는 결과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적합한 제도적 형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간주한다. S. Krasner,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1(2001).

30) 예를 들어 유길준은 양질체제의 개념을 통해 전통적 질서의 불가피한 제약을 수용하면서 근대적 질서로의 이행을 모색하려 하였고, 방국의 권리를 강조함에 의해서 권력정치적 상황에서 규범의 상대적인 역할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신옥희, "근대 한국의 주권 개념", 『세계정치』 제25집 2호(2004).

사실상 일방적인 무정부 상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는 체제의 특성을 보여주었다.³¹⁾ 미국의 대표적인 냉전사가인 개디스(John Gaddis)는 소위 ‘긴 평화(long peace)’의 시기에 있어 미소는 ① 상대방의 영향력의 영역을 존중하고 ②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며 ③ 핵은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④ 예측 불가능한 합리성보다는 예측 가능한 비정상성을 선호하며 ⑤ 다른 편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서술한다.³²⁾

즉 세계적 수준의 냉전체제는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과 같은 비정상성을 통한 안정이 모색되었던 두 강대국 사이의 병립관계였던 것이다. 루코워츠(Nicolas Lewkowicz)는 영국학과의 논의를 통해 2차 대전 이후 독일문제의 처리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 있어 강대국 간에 각 행위자의 안정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개별적 목표의 추구를 허용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내는 ‘실제적 제휴(practical association)’의 틀이 존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³³⁾ 이와 같은 진영 간 정치의 특성은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인 사회성을 가진 각기 다른 두 개의 체제를 만들어냈고, 진영 내 정치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은 후견국으로서 부담을 지는 대신 위계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부 단위의 정책적 순응을 기대할 수 있었다.³⁴⁾ 냉전

31) 하지만 양극체제의 구조가 구체적인 공동의 이익이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관념적 대립의 구조와 중첩되는 것이었다.

32) J. L.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ch.8.

33) N. Lewkowicz, "The German Question and the International Order(1943-8): An English School Approach", WISC(Istanbul: Turkey, August 2005).

34) 웬트(Wendt)와 프리드하임(Friedheim)은 소련 - 동독관계의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 Wendt and D. Freidheim, "Hierarchy under Anarchy: Informal Empire and the East German State", in T. Biersteker and C. Weber(eds.),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기의 세계정치는 다자적인 근대 국제체제의 일반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진영 간의 상대적인 무정부성과 진영 내의 위계성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³⁵⁾

동아시아의 냉전은 세계적 냉전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의 자율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었다. 1940년대 후반까지 동아시아는 사실상 이념적인 갈등보다는 일본의 패전과 중국의 내전으로 인한 권력정치적 혼돈 상태에 놓여 있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미국은 모택동의 전략적 활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은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중 간의 군사적 교전에 의해 전환되면서 미중 간의 대립과 미일 간의 새로운 협력 모색의 형태로 전개되었다.³⁶⁾ 크리스텐센(Thomas Christensen)은 ‘잃어버린 기회(lost chance)’의 검토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모택동의 정부를 승인했다면, 한국전쟁에서의 교전과 그를 통한 극단적인 대립관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³⁷⁾ 남기정은 냉전 초기의 미일관계를 고찰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냉전질서가 형성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의 전개를 통해 일본이 주권국가의 전 영토를 군사작전을 위한 잠재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는 ‘기지국가’의

35) 신현실주의적인 무정부성의 전제와는 다른 세계정치에서의 권위와 위계성의 논의를 위해서는 D. Lake, "Escape from the State of Nature: Authority and Hierarchy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32-1(2007)을 참조할 것.

36) 김명섭은 이를 일본 중심의 대동아 경제구조의 부활과 식민 질서의 지속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명섭,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탄생", 백영서 외, 『동아시아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과주: 창비, 2005).

37) 크리스텐센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미국의 전략적 계산의 실패였다기보다는 냉전적인 동원 체제 하에 있었던 국내정치의 제약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T. Christensen, *Useful Adversary: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³⁸⁾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경로는 한국의 국가형성과 대외정책적 선택이 냉전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인공과 임정,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을 거쳐 이승만의 단정노선이 관철되고, 전쟁의 발발 이후 이승만이 미국에게 작전권을 이양하고 휴전 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맺어지게 됨으로써 이후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공식화되는 남방 삼각관계의 기반이 만들어졌고, 이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교정책의 중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54년 제네바회담의 결렬 이후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기정사실화되었고,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은 안보적인 분업구조를 갖는 위계적 성격의 체제를 만들어냈다.³⁹⁾ 따라서 냉전기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한편으로는 남방과 북방 삼각관계 사이의 (세계적인 수준보다 오히려 견고한 형태의) 진영 간 대립의 체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 제국(informal empire)’ 내에서 ‘구멍 난 주권(perforated sovereignty)’이 수용되는 진영 내의 위계적 국제사회로 양분되었던 것이다.⁴⁰⁾

38)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국제관계연구회 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서울: 을유문화사, 2003).

39) 이러한 체제 내지 사회의 특성은 한국의 사례에 있어 독특한 주권적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즉 남북한 관계는 고정된 하나의 정체성의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주권국가의 정체성이, 또 때로는 서로 다른 이념적 기반을 가진 분단국가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복수정체성(multiple identity)의 관계이며, 한미관계도 권력중립적인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권력관계가 결부된 불완전주권국가와 초국경적인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에 가까운 것이다. 이근, 전재성, “안보론에 있어서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한국과 국제정치』 제17집 1호(2001), p.19.

40) 이 용어는 Wendt and Friedheim(1996)에서 빌렸다.

(3) 탈냉전: 다변화된 국제사회와 주권의 재구성

마지막 시기는 냉전 이후의 시기다. 냉전의 종언은 국제정치의 현실과 이론의 양면에서 모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양극 체제의 붕괴를 ‘과거로의 복귀’로 받아들이며 다극화된 체제가 오히려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하였고,⁴¹⁾ 다른 편에서는 동구 진영의 와해를 ‘역사의 종언’이라고 부르며 탈냉전과 그에 따른 구사회주의권의 개방을 통해 단일한 세계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된 체제가 도래할 것으로 낙관하기도 하였다.⁴²⁾ 하지만 세계화가 심화되고 미 중심의 일극체제가 강화되자 제국이나 새로운 중세와 같은 근대 국제체제를 넘어서는 세계의 등장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고,⁴³⁾ 9·11테러의 존재는 이른바 ‘탈냉전의 종언’ 이후의 새로운 세계안보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⁴⁴⁾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는 체제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적인 차원과 단위의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부잔은 다원주의적 국제사회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세계사회와 지구적 제도의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다변화된 협력 모델의 고려를 주장하였다.⁴⁵⁾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크래스너는 주

41)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1(1990).

42)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43) 다나카 아키히코, 이용현 역, 『새로운 중세: 21세기의 세계시스템』(서울: 지정, 2000).

44) S. Talbot and N. Chanda(eds.), *The Age of Terr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fter September 11* (New York: Basic Books, 2001).

45) 그는 화이트로부터 이어져온 영국학파의 세 가지 전통의 구분 대신 개인 간, 국가 간, 그리고 초국가적인 세 가지 영역을 새로운 분석틀로 설정하고 그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지구화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수준의 자유주의적 경향과 더불어 하부-지구적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포괄하려 한다. B. Buzan, *From International to World Society?: English School Theory and the Social Structure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권 원칙의 다양한 변형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정체(polity)의 자발적 선택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부잔의 작업이 복합적인 체제 변화의 거시적인 과정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크래스너의 작업은 그에 대한 미시적인 단위 차원에서의 재구성의 측면을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사회적 측면과 중첩되는 이와 같은 다변화된 국제사회의 논의들은 민주지대의 확장, 소수민족의 권리나 인권, 인간안보와 인도주의적 개입, 그에 따르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문제 등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과 연관된다.

하지만 세계사회와 탈주권의 시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동아시아는 근대적 주권을 중심으로 한 관념과 제도의 지속 또는 완결이 모색되면서 무정부적 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⁴⁶⁾ 구조, 과정, 단위의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라는 하부 체제는 협력보다는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는 아직도 실질적인 사회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⁴⁷⁾ 지역적인 차원의 다자주의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 일본의 헌법 개정,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자국에게는 정상화의 역동성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는 지역적인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현상 유지의 한계와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수반할 수 있는 안보딜레마를

46) 나린(Narine)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의 한계를 구성 국가들의 국가건설 과정의 현 단계와 그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의 고려에 따른 배타적 주권에 대한 민감성에서 찾고 있다. S. Narine, "State Sovereignty, Political Legitimacy and Regional Institutionalism in the Asia-Pacific", *The Pacific Review*, 17-3(2004).

47) 국제사회론의 틀을 활용하여 탈냉전기 미중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로 Y. Nagao(et. al.), "Post-Cold War International Society and U.S.-China Relationship", *NIDS Security Reports*, 1(2000)을 참조할 것. 그들은 탈냉전기의 국제사회가 유럽의 국제사회처럼 동질성에 기초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질성의 토대 위에서 모색될 것으로 전망하고 보편주의적 관점에 기반 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개입전략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간의 다원주의적인 상호성을 넘어서는 연대주의적인 간주관성의 확대와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적 형태의 특수성과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복합적인 단위 창출의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주어진 정체의 민주화나 민주화된 국가들의 협력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은 불충분하며,⁴⁸⁾ 중국의 일국양제론, 일본의 평화국가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논의와 같은 변형된 주권의 논의에서 창의적인 재구성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사례에 있어 주권이란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는 파마콘(pharmacon)적인 대상이며, 이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재편이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4. 결론

이 논문은 구체적인 이론적 논쟁이나 역사적 사례를 다루었다기보다는 동아시아/한국의 국제정치이론 구축에 필요한 시론 내지는 예비이론(pre-theory)으로서 하나의 유형론(typology)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위

4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 혹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동심원적 다자주의의 논의는 동아시아에서 그 한계를 갖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H. Nau, *At Home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ch.6을 볼 것.

49) 결국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단위 차원의 거버넌스 문제 해결의 노력을 선행 또는 병행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적인, 그리고 각 국가의 국내적인 환경이 그러한 시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적 진단과 규범적 처방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체제는 세계적인 체제의 하나의 부분이 자 자율적인 역동성을 갖고 있는 대상인 것이며, 권력의 분포, 무정부성/국제사회의 속성, 지역적인 정체성의 모든 면에서 근대 국제체제의 기준을 형성해 왔던 유럽의 국제체제와는 다른 특성을 가져왔다.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통적 방식의 유형, 근대적 구성의 측면, 그리고 탈근대적 전환의 양상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는 서구 모델의 단순한 대입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와 주권과 같은 보편적 요인의 특수한 변용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불의 저서인 *The Anarchical Society*, 3판의 서문에서 허렐(Andrew Hurrell)은 불의 이론적 고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구성에 있어서의 두 가지 근본적인 긴장에 대한 불의 우려와 함께 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각기 다른 가치와 선의 관념들을 매개하려고 하는 규칙과 제도들과 단일한 양식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혹은 부과하려고 하는 규칙과 제도들 사이의 긴장이며, 두 번째는 현재 국제사회의 과장된 규범적인 야심과 그것의 아직도 설익은 권력정치적인 제도적, 문화적 토대 사이의 긴장이다 [……] 비록 때로는 낙관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심지어 향수에 어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은 아직도 연약한 국제사회의 구조에 너무나 많은 희망과 요구와 도덕적인 주장이 가해지고 있는 (그가 칭하기를) 설익은 지구적 연대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⁵⁰⁾

50) A. Hurrell, "Foreword to the Third Edition: *The Anarchical Society* 25 Years On", in H.

부잔이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사회론의 버전이나 크래스너가 주장하는 결과의 논리를 고려한 적합성의 논리의 변형 또한 이와 같은 중도와 자체의 입장에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설명이론과 규범이론으로서의 보편이론이 적실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중범위 이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제이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화이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긍정적인 수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논문 접수일 2008.10.23

심사 완료일 2008.11.20

Bull, *The Anarchical Society: The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In Pursuit of East Asian International Theory

Shin, Wookhe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sovereignty',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its East Asian application and periodical differences. It is a part of the attempts to construct 'Kore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rough developing regional dimension theory of East Asia.

In the theoretical part,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theory', points out the limits of the theoretical debates in American international relations circle, and introduces international society theory of 'English School' and the flexible sovereignty analysis as alternatives. Contents of the case part consist of reviews of three historical periods: the colonial period, the Cold War period, and the post-Cold War period. This part deals with the diffusion process of idea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sovereignty, which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results of their application in the Korean case. The characteristics of janus-faced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losing modern state sovereignty in the colonial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bifurcated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rocess of structuring perforated sovereignty in the Cold War period,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ified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sovereign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are the objects of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 Keywords

East Asia, international society, sovereignty, colonialism, the Cold War, the post-Cold War